

김영록 전남지사, 직원들과 첫 점심 소통



김영록 전라남도지사가 3일 도청 구내 식당에서 현업·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들과 소소한 개인사를 이야기 하며 점심을 함께 했다. 김 지사는 직원들과 소통만큼은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내부 소통행보를 하게 됐다.

김영록 전남도지사가 3일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 하며 내부 소통행보를 시작했다. 김 지사는 이날 도청 구내 식당에서 현업, 민원부서에 근무하는 직원 20여 명과 기념사진을 촬영하고 소소한 개인사를 이야기하며 점심을 함께 했다.

대풍 복상으로 취임식을 취소한 그는 직원들과의 소통만큼은 늦출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이날 내부 소통행보를 하게 됐다. 김 지사는 이날 의례적인 격식에서 벗어나 직원 한 명 한 명과 눈을 마주하며 개인사에 집문을 던지는 등 참석자 직원 모두와 얘기를 나누

직원 모두와 공식 선배·인생멘토로 소통 공직생활 경험담 토대 직원 공감대 이끌어

며, 공직 선배이자 인생멘토로서 이미지를 보여줬다. 처음에는 어쩔고 낯설어하던 직원들도 나중에는 친근한 선배처럼 마음 편히 얘기하는 모습을 보였다. 도민소통실 최민경(환경7급) 주무관은 "도청 직원 보육시설인 비둘기어린이집이나, 보육부담을 배려해주는 청사 '행복주차장' 등이 육아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며 "앞으로도 이런 분야에 많은 관심을 가져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대해 김 지사는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시절 일화를 들려주면서 "여직원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등 육아로 인해 인사 불이익을 받는 사례는 반드시 없애겠다"고 약속했다. 내부 소통행보에 참석한 또 다른 직원인 매주 수요일과 금요일 시행되는 '가정의 날'에 대해 언급하자,

김 지사는 "가정의 날은 우수 사례이므로 앞으로 잘 유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김 지사는 이어 "공무원은 도민에게 무한 봉사해야 한다"며 "시간이 아니라 일의 성과를 통해 해야 한다. 집중근무제 등을 활용하고 대기성 시간을 줄여 효율적으로 일하라"고 당부했다. 이는 '일을 적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일을 효율적으로 빨리 처리하고 남은 시간을 생활에 활용하라'는 김 지사 식의 '일과 생활 균형' 해법으로 풀이된다. 이날 김 지사는 얘기 중간중간에 도청과 중앙부처 공직생활 국회의원,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시절의 경험담을 토대로 이야기해 직원들의 공감을 이끌어냈다.

김정환 기자

동구, 지한초교 아동 안전지도 제작 눈길

광주 동구는 지한초등학교 주변 아동대상 범죄예방과 위험환경 개선을 위해 아동 안전지도 제작했다고 밝혔다. 이번 안전지도는 전문 감사의 사전조사를 바탕으로 책임교사, 지한초등학교 4학년 23명의 학생이 참여해 학교 변경 500m 이내의 관공서, 공터 등 안전 사각지대, CCTV설치지역 등 학교주변 위험환경을 조사하고 지도에 표시해 학생들이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작했다. 이 같은 조사결과를 토대로 만들어진 안전지도는 홍보용 공책으로 제작해 전교생에게 배부하고, 학교 홈페이지 및 가정통신문, 학교게시판 등에 게재할 예정이다.

서구, 건강한 여름나기 방문간호사가 함께

광주 서구가 여름철을 맞아 의료취약계층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해 집중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한다. 건강취약계층을 체계적으로 관리하여 여름철을 건강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돕기 위한 것. 찾아가는 방문건강관리사업은 건강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만성질환 관리, 혈압·혈당·콜레스테롤 기초건강관리와 맞춤형 테마보건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상자 스스로 건강관리 할 수 있도록 돕는 사업이다. 가정방문 간호사와 물리치료사, 치위생사, 영양사 등 전문 인력과 연계해 건강한 식습관을 위한 영양교육, 낙상예방을 위한 근력강화 운동, 올바른 틀니관리 교육 등 체계적인 방문건강관리를 실시한다.

남구 "나도 좋은 부모이고 싶다" 공개 강좌

광주 남구는 학업 및 자녀와의 관계 문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부모를 위한 대국민 공개 강좌를 개최한다. 3일 남구에 따르면 오는 4일 오전 10시부터 남구청 5층 보건교육실에서 '나도 좋은 부모이고 싶다'라는 주제로 공개 강좌가 열린다. 이 강좌는 대한소아청소년정신의학회가 주최하며, 현행하고 지혜로운 방법을 통해 실태처럼 얽힌 자녀와의 문제를 원만하게 해결하고자 하는 부모들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강연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강단에는 아이나래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장혁진 원장이 강사로 오르며, 장 원장은 이날 총 3가지 소주제로 나눠 세부적인 강연에 나선다.

북구, 주민 제안 아이디어 지역현안에 반영

광주 북구가 주민들이 직접 예산편성 과정에 참여해 아이디어를 제시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재정자치 구현에 나선다. 북구는 오는 31일까지 생활 속에서 주민들이 필요한 사업을 직접 발굴·제안하여 예산에 반영하는 '2019년 주민참여예산 제안사업' 공모를 실시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사업은 총 8억원의 규모로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소 및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에 필요한 지역 현안사업과 수혜주민이 많고 지속적인 혜택 공부가 가능한 구 정책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한다. 접수된 제안사업은 소관부서 타당성 검토, 예산참여시민위원회 분과별 현장확인 및 제안사업별 사전설명회를 거쳐 주민 모바일 전자투표와 시민위원회 전체투표를 통해 사업 우선순위를 최종 결정한다.

광산구 수완보건지소, 저염식식회 개최

3일 광주 광산구 수완보건지소와 고혈압·당뇨병등록교육센터가 행복나루노인복지관에서 센터 등록 환자와 가족 50여명을 대상으로 저염식식회 '삼삼건강밥상'을 열었다. 고혈압·당뇨병 환자와 가족이 스스로 건강을 관리하고, 식생활 개선에 나서도록 마련한 이날 식식회는 기초건강 측정, 질환·영양 교육, 식식회 순으로 진행됐다. 수완보건지소 관계자는 "참가자 모두 삼삼한 밥상으로 식생활을 개선하고, 고혈압·당뇨병을 잘 관리할길 바란다"며 "심뇌혈관질환 관리와 합병증 예방에 도움을 주는 자리를 앞으로도 많이 만들겠다"고 밝혔다. 임형택 기자

광주시, 근로빈곤청년 200만원 비상금통장 만들기 지원 '눈길'

광주시가 임금소득이 낮은 근로청년에게 200만원 비상금 만들기 지원사업을 펼친다. 10만원씩 10달을 저축하면 광주시가 100만원을 더해 200만원의 저축통장을 만들어주는 방식이다. 광주시는 30일까지 임금소득이 낮은 근로청년들의 채무 예방과 생활안정을 돕기 위해 '청년비상금통장' 참여자를 모집한다고 3일 밝혔다. 참여 대상은 광주에 거주하는 만 19~39세 근로청년으로 세전 근로소득이 60만2000원 이상 167만2105원 이하다. 이번 사업은 광주지역 20대 청년 근로자 중 79%가 200만원 미만 임금으로 청년부채에 시달리고 있다는 조사결과에 따른 것이다. 지난해 광주시가 '청년부채 실태조사 연구'를 실시한 결과 청년들의 부채문제가 소액대출에서 시작돼 악성화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저축액이 100만원 미만이라고 답한 청년이 전체 응답자의 45.2% 생활비를 제외하고 여

돈이 전혀 없다는 청년도 26.2%에 달했다. 청년비상금통장 신청은 광주시청을 직접 방문해 제출서류를 접수하거나 대리인 접수도 가능하다. 최종신청자는 8월7일 발표할 예정이며 경제와 금융교육, 참여 시간 소모임도 운영할 계획이다. 이승철 광주시 청년정책과장은 "100만원, 200만원의 여유돈이 없어 빚을 지는 청년들이 늘어나고 있다"며 "저축의 성취감을 갖게 하고 청년들에게 심리적인 안정감을 줄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서은홍 기자



전남농협, 새농민상 본상 3쌍 부부 배출

농협 전남지역본부(본부장 박태선)는 농협중앙회가 주관하는 '제53회 새농민상 본상' 수상자로 신상호·이화자씨(고흥군 점안면 대천호) 부부와 김순규·정정순씨(장흥군 장흥읍 건사리) 부부, 정기근·박민숙씨(함평군 대동면 용연길)를 선정, 시상식을 가졌다고 3일 밝혔다. 신상호(60)·이화자(59)씨 부부는 1985년에 시설오이 재배를 시작으로 지금까지 33년간 농업에 종사하고 있다. 부부는 끊임없는 공부와 연구를 통해 지역 농업이 발전할 수 있도록 주변 농가들을 교육시키는데 앞장서고 있으며, 특히 귀농인을 대상으로 농업 기술과 노하우를 아낌없이 전수한 공로를 인정받았다. 김순규(56)·정정순(53)씨 부부는 1986년 고향인 장흥으로 귀농, 수도작으로 농업을 시작했으며, 2000년대 초반부터는 본격적으로 표고버섯을 재배하기 시작하여 대농의 길로 들어섰다. 부부는 장흥표고버섯을 널리 알리기 위해 신문, TV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홍보활동을 하고 대한민국 제1호 표고해설사로 활동하는 등 장흥표고버섯을 전국적으로 유명한 브랜드로 키워내는데 큰 공을 세웠다. 정기근(57)·박민숙(57)씨 부부는 현재 수도작과 잡곡을 재배하고 있는 대농으로, 1994년 농업경영인(후계자)으로 선정되며 본격적으로 전문농업인의 길로 들어서게 되었다. 부부는 농촌 마을 전체의 소득성장을 위해 서울시 성동구청과 자매결연을 맺어 농산물 직거래 장터를 개설하고 친환경 우리 농산물을 이용한 농촌 체험장을 개설하는 등 마을 소득 사업에도 앞장서고 있다.

"호남신문과 함께 할 주제기자 모집합니다"

고흥 · 장성 · 장흥

湖南新聞이 지역공감 미래창조 정론직필의 나무를 키우겠습니다.

전 화 : 062-224-5800

e-mail : ihonam@naver.com
F a x : 062-222-5548
홈페이지 : www.ihonam.com

湖南新聞

고객 감동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고을석 세무회계사무소

- 법인 설립
- 양도소득증여
- 기업 진단
- 기 장 대 리
- 건설면허신청
- 의 부 감 사

광주시 서구 매월동 948 산업용재유통센터 30동 217호(풍암지구)
TEL : 062-603-1060 FAX : 062-603-1062
H·P : 011-641-6152

▶비계 구조물 해체공사 ▶석면 해체공사
▶지정·건설 폐기물 처리 ▶석면조사

측량 >> 토목 설계 >> 도시 계획
토목공사 >> 창업상담 >> 관계민원업무

광주 서구 쌍촌동 994-1 영산강빌딩 별관 203호

(주)고려환경개발 Tel : 062)361-0404
(주)고려기술공사 Tel : 062)362-8251

한 정 승 인 공 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2018년 단 980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이 말 방 (281209-2559919)
최 후 주 소 : 광주 서구 군본2로 61(화정동)

위 망 이말방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8년 7월 4일

공 고 인 : 정재철.
주 소 : 여수시 여서로 181, 605동 113호(여서동, 부영아파트)
한정승인수리일 : 2018년 6월 28일
공고기간 : 2018. 7. 4~ 2018. 9. 5

한 정 승 인 공 고

사 건 번 호 : 광주가정법원 2018년 단 3236 상속한정승인
사 망 자 : 정 인 선 (600525-2661049)
최 후 주 소 : 전남 담양군 창평면 경동길 42

위 망 정인선에 대하여 상속인은 민법 제 1028조에 따라 한정승인 하였으므로 민법 제 1032조(채권자에 대한 공고, 최고)의 규정에 의거하여 다음과 같이 공고함. 신고기한(공고일로부터 2개월)내에 채권 또는 수증을 신고하지 아니하면 청산에서 제외함.

2018년 7월 4일

공 고 인 : 조혜선.
주 소 : 전남 담양군 창평면 경동길 42
한정승인수리일 : 2018년 6월 28일
공고기간 : 2018. 7. 4~ 2018. 9. 5